

# 광주 연고 구단 페퍼스, 광주 연고 선수가 없네

### 지난해 손은진 방출 이어 올해 광주체고 출신 이은지마저 방출 구단 "재정비 과정 불가피"…팬들 "지역선수 육성 의지 보여야"

광주 시페퍼스 여자프로배구단이 광주체고 출신 이은지를 방출했다. 수련선수로 입단했던 광주체고 출신 손은진이 지난해 방출돼 광주여대로 진학한 데 이어 이은지가 지난해에 따라 페퍼스에 광주 연고 선수는 한 명도 없다.

페퍼스는 최근 한국배구연맹(KOVO)에 2023-2024 시즌 선수등록 명단(1차)을 공시했다. 외국인 선수 야스민(아포짓 스파이커)과 아시아 쿼터 엔제이 필립스(미들블로커)를 제외한 15명을 등록했다.

이고은·박사랑(이상 세터), 서채원·박연화·하혜진·염어령형(미들블로커), 오지영·문슬기·김해빈(리베로), 박정아·채선아·박경현·박은서·이한비(아웃사이드 히터), 이민서(아포짓 스파이커) 등이다.

하지만 광주체고 출신 이은지를 비롯해 지민경(이상 아웃사이드 히터), 이현·구술(세터) 등 4명

을 자유신분선수로 등록했다. KOVO 규정에 따르면 이들은 공시일부터 정규 리그 3라운드 종료일까지 모든 구단과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다.

이들이 자유계약 선수로 풀렸지만 어느 팀도 불러주지 않으면 올 시즌엔 프로배구에서 뛸 수 없다.

이은지는 광주 출신 선수 연계육성 차원에서 페퍼스가 창단 멤버로 영입했던 상징적인 선수다. 치평초, 광주체육중, 광주체고를 졸업했다.

페퍼스는 2021-2022 한국배구연맹(KOVO) 여자 신인선수 드래프트와는 별도로 이은지를 수련선수로 선발했다.

리시브, 서브 등 탄탄한 기본기를 인정받은 이은지는 같은 해 정식 선수로 등록했다.

하지만 주로 원정전에 머물렀으며 원포인트 서버로 뛰는 등 출장 기회를 얻지 못했다.

손은진도 2022-2023 신인드래프트가 끝난 뒤

수련선수로 페퍼스 유니폼을 입었다. 광주체육중·고를 졸업한 이은지의 후배다.

정식 선수의 꿈을 키우던 손은진은 지난해 시즌 중 방출돼 울초 창단한 광주여대 배구팀으로 옮겼다.

광주 연고 프로팀에서 지역선수를 육성차원에서 영입하는 것을 반겼던 팬들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지역 배구계의 관계자는 "프로의 벽이 높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지역 연고구단에 지역 선수가 없어 아쉽다"며 "비록 실력이 모자라도 연고 구단의 배려로 성장하는 지역 출신 선수들이 많았으면 한다. 페퍼가 광주연고 구단으로서 지역 선수 육성 의지를 보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페퍼스는 선수단 재정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은지를 방출했다고 밝혔다.

페퍼스 관계자는 "올시즌을 앞두고 공격적으로 선수를 영입했기 때문에 셀러리캡(연봉총상한) 문제도 있었다. 성적을 내야 하는 프로구단으로서 전략적으로 필요한 선수를 고려하다보니 방출선수가 있다"면서 "이은지 선수에게는 2년 동안 충분히 기회를 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운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이은지가 2021-2022 KOVO(한국배구연맹)컵 대회에서 스파이크 하고 있다. <KOVO제공>

# 윤영철의 배짱 "맞으면서 배우겠습니다"

### 선발진 위기 속에 기대 이상 활약 7실점 쓴맛 본 NC전 꼼꼼히 복기 '내 것'하면서 경험 통해 성장할 것

"맞으면서 배우겠습니다." '특급 루키' 윤영철이 신인다운 배짱으로 배움의 시즌을 보내겠다는 각오다. 윤영철은 5일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리는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서 선발로 나와 시즌 13번째 등판을 소화한다. 비로 4일 경기가 취소되면서 윤영철은 하루 더 쉬고 마운드에 올라 박종훈과 선발 맞대결을 벌인다.

중압고를 졸업하고 올 시즌 프로무대에 뛰어난 윤영철은 선발진 위기에도 지난봄 가장 꾸준하게 자리를 지키며 기대 이상의 활약을 했다.

하지만 아직은 경험과 관리가 필요한 어린 선수. 6월 6일 SSG전에 이어 11일 두산전까지 프로 첫 4일전을 소화했던 윤영철은 17일 NC전에서 프로의 매운맛을 봤다.

이날 3회에만 9개의 안타를 내주면서 7실점을 하는 등 3이닝 11피안타 1볼넷 1탈삼진 7실점을 기록했다.

결국 이 경기를 끝으로 뒤늦게 윤영철에게 휴식의 시간이 주어졌다. 엔트리에서 빠진 윤영철은 선발 로테이션을 한 톨 쉬어가면서 숨을 골랐다.

그리고 6월 28일 키움전을 통해 다시 선발진에 가세했다.

윤영철은 이날 경기에서도 4회 김혜성과 이정후에 이어 연속 5안타를 맞으면서 4실점을 했지만, 80개의 공으로 5회까지 책임지면서 선발 임무를 수행했다.

"이정후, 김혜성 선배가 감이 좋으니까 주자를 루에 안 쌓으려고 신경 썼던 것 같다. 그런데 4회가 어렵다. 김혜성, 이정후 선배에게 정타 맞은 건 어쩔 수 없는데 바가지 안타가 아쉽다. 5회를 채우기는 했지만 이것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다"며 지난 등판을 복기한 윤영철은 "지난 대결에서도 맞았는데 조금씩 배우고 있는 것 같다. 볼넷 안 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주지 않으려 노력한다. 승부



KIA '특급 루키' 윤영철

하면서 맞아봐야 다음에 어떻게 대처할지 아니까 승부하려고 한다. 이기려고 던져야겠지만, 배우면서 던진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군에서 쉬는 동안에도 윤영철의 배움은 멈추지 않았다. 치열한 그라운드에서 벗어나 올 시즌을 차분하게 돌아보고, 손승락 퓨처스 감독의 현역 시절 주무기인 '커터'를 배우기도 했다.

윤영철은 "쉬면서 NC전 생각을 많이 했다. 연타 맞는 게 쉽지 않은데 맞았으니까 뭐가 문제인지 고민해보고, 쉬면서 컨디션을 관리하고 체력도 안배했다"며 "또 2군 있는 동안 손승락 감독님한테 커터를 어떻게 던지는지 배워서 몇 개 써봤다. 지난 등판에서는 보여주는 정도였지만 팬들은 것 같아서 연습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선발진 위기 상황에서 프로에서 첫 여름을 맞은 윤영철은 '내 것'을 하면서 경험을 통해 성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영철은 "다위를 정말 많이 탄다. 키움전에서 너무 습했다. 여름철 체력 관리 등은 직접 경험해보면서 배우는 게 빠른 것 같다. 최대한 안 움직이려고 하면서 잘 먹고 잘 쉬겠다. 오래 야구를 해야 하니까 체력 안배하는 것 등을 직접 겪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부담은 없다. 내 것만 잘하면 된다. 이닝을 끝 수 있으면 투수도 아깝 수 있고 좋은 것이다. 최대한 이닝 끝까지 오래 던지는 게 내 역할인 것 같다. 등판할 때 더 집중해서 던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023 타이베이 아시아오픈유도대회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수확한 신유나(왼쪽 세번째)와 장한빛(두번째)이 신대철 감독, 김성연 코치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유도팀 제공>

# 광주도시철도공사 신유나 '금 메치기'

### 타이페이 아시아오픈유도

광주도시철도공사 유도팀 신유나가 2023 타이페이 아시아오픈유도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신유나는 지난 2일 타이페이 집네시올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자일반부 -57kg급 결승에서 크루 멘베이(카자흐스탄)에게 반칙승(지도 3개)을 거두고 정상에 올랐다.

/운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신유나는 8강전에서 린유하(대만)를 상대로 반칙승(지도 3개)을 거두고 준결승전에 진출, 정나리를 되치기반칙승으로 제압, 결승에 진출했다.

-70kg급에 출전한 장한빛은 은메달을 기록했다. 1회전부터 준결승전까지 순조롭게 진출한 장한빛은 결승에서 리아오 유정(대만)에게 누르기 한판을 내주고 은메달을 따냈다.

/연합뉴스

# 여자당구 강호들 엇갈린 희비...스퉁 32강 진출·이미래 탈락

여자프로당구 LPBA 64강전에서 강호 선수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캄보디아 특급' 스롱 피아비(블루원리조트)는 3일 경기도 안산시 상록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당구 2023-2024시즌 2차투어 '실크로드&안산 PBA-LPBA 챔피언십' LBPA 64강전에서 김한길을 상대로 21-17로 승리했다.

여자부 LPBA는 지난해까지 진행했던 서바이벌 방식을 폐지하고 64강까지 단판 점수제로 치러진다. 먼저 25점을 채우거나 제한 시간 50분이 지났을 때 점수가 높은 선수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한다.

'당구 여제' 김가영(하나카드)과 개막전 우승자

김민아도 각각 박지원과 김경자를 물리치고 쾌조의 출발을 알렸다.

개막전 8강에 오른 '슈퍼 루키' 장가연(휴온스)과 여자 3쿠션 아마추어 랭킹 1위 한지은(에스와이)도 1차와 2차 예선 승리에 이어 64강전을 무난히 통과했다.

장가연과 한지은은 LPBA 투어 우승 경력이 있는 허가시우치(일본)와 김예은(웰컴저축은행)을 각각 일축하는 돌풍을 이어나갔다.

허가시우치와 김예은이 일찌감치 짐을 싣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래(하이원리조트) 역시 김다희에게 패해 32강 진출에 실패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엘리멘탈, 범죄도시3
- 2관 인디애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 라방
- 3관 범죄도시3,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 4관 귀공자, 플래닛
- 5관 인디애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 악마들, 빈틈없는 사이, 라방
- 6관 엘리멘탈, 기적을 믿는 소녀
- 9관 -
- 7관 씨네마클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1986 그 여름, 그리고 고등어통조림
- 8관 씨네마클 인디애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 보이스 어프레이드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34회 정기연주회 **평화를 향한 역동과 진혼**

일시 : 2023-07-25(화)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415-5403

기획공연 포커스 장하은 콘서트 **'Once Again'**

일시 : 2023-07-18(화)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33